

이시카와현립미술관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이시카와 미술공예의 정교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 4,000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보 1 점을 상설 전시하며, 중요문화재 7 점을 비롯해 이시카와 출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1959 년에 건립되었으며, 지방의 현립미술관으로는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특별 명승 겐로쿠엔에 인접해 지어졌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청초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 1970 년대 후반, 이시카와현은 대규모 전시회 개최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 관리를 위해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983 년에 녹음이 우거진 가나자와의 문화지구 중심에 현재의 건물이 개관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의 컬렉션은 비교적 규모가 크며, 전통공예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이시카와현의 중요한 작품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번주인 마에다 가문이 각지에서 명장들을 초청해 최첨단 공방을 정비했습니다. 이 공방에서 제작된 공예품은 전국 각지로 유통되기도 했지만, 많은 작품이 이시카와현에 남아 지역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가나자와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대규모 파괴를 면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소장품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이후 이러한 소장품들은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상설전과 기획전을 합쳐 항상 약 250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품에는 구타니야키, 가가유젠, 가가마키에 칠기 등 이시카와현을 대표하는 공예기술과 양식을 소개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장식용 도검이나 마구, 가마, 경전 등 이시카와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교한 공예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 도구, 노카쿠용 탈, 노카쿠용 의상, 서예 도구 등은 일본의 광범위한 예술분야에 이시카와현도 깊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또, 이시카와 출신 현대 작가들의 유화와 사진 등의 현대적인 작품들은 이시카와의 기술과 미의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이시카와의 전통적인 미술공예품 보존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역사적인 작품부터 최신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시카와현의 문화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